

---

## 브라질, Americel에 무선 사업권 부여

---

브라질 정부는 중서부 지방의 무선전화 사업면허를 Telesystem International Wireless와 Bell Canada를 포함하는 이동전화 합자회사인 Americel에 부여하였다.

Americel의 자회사인 Telet은 현재 진행중인 브라질의 이동전화 사업의 공개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브라질 정부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한다. 합자 회사의 51% 지분은 시티은행과 브라질의 연금 기금과 은행들이 갖고 있다.

Americel과 Telet은 브라질의 사업권의 90%를 입찰했으며, 수도인 브라질리아를 포함하는 약 1천 4백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중서부 지방의 사업권을 입찰한 유일한 회사이다. Telesystem과 Bell Canada는 6월말까지 사업 허가 계약을 마무리짓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Dow Jones, 1997. 6. 5; Telecom newsfax today, 1997. 6. 6*)

---

## EU 집행위원회, 번호계획 수립

---

상당한 지지를 나타낸 공청회를 인용하면서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EC)는 유럽 연합의 번호계획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정보통신 정책 위원인 Martin Bangemann의 제안에 따르면 유럽 집행 위원회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앞으로의 목표를 정하였다.

그러한 방침은 (1) 그때까지 장거리 전화 사업자들에게 경쟁적인 지역 번호 코드 개방 (2) 1년 후에 유럽 전역의 무료전화와 특별 가격 서비스 (3) 2000년 1월 1일까지 사업자의 사전 선정 등을 허용할 것이다.

EC는 올해 중반까지 유럽 연합 장관 회의와 유럽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표를 승인했고 또한 논평가들로부터는 거의 지지를 얻지 못한 유럽의 3XX 국가 코드에 기초한 통합 번호를 채택하자는 제안을 승인했다. (*Telecommunications Reports, 1997. 5. 26*)